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여호수아 14:6-15, 빌레몬서 1:4-7

최정웅 목사님

요약

서론 : 세계를 변화시키는 주역은 복음 회복, 전도 회복의 주역이었고, 이들을 도운 보호자들이었다. 중직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1. 주 예수에 대한 사랑 :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사하는 영적 상태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중직자의 자세다.
 2. 성도에 대한 사랑 : 믿음의 교제를 통해 선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며, 화평케 하는 자로서, 전도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직자의 자세다.
- 결론 : 이름없는 제자로 헌신하다가 위기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했던, 갈렙 같은 중직자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장소에 모여 예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심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남은 생을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할 종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이해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엘리사가 수넬 지역을 지나갈 때, 그 지역의 유지였던 여인이 그 광경을 보았다.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지나가는 저 분은 하나님의 종인데, 너무 더운데 가실 때 쉴 곳이 없으니, 우리가 2층 다락방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이 쉬어가도록 하면 좋겠어요.” 남편이 아내의 말에 동의해서 쉴 곳을 마련했다. 그리고 엘리사가 지나가니까 쉬어가도록 청을 드렸는데, 게하시를 데리고 들어가서 쉬게 되었다. 거기 누워보니 책상이 준비되어 있고, 침대가 있는데 누워 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 그래서 게하시를 불러서, “이 여자의 세심한 배려가 너무 고맙다.” 옛날 번역에는, ‘이 여인의 마음이 조밀하다’고 했다. 그래서 종을 시켜서 물어보았다. “혹시 나라에나 이 지역을 지키는 장군에게 부탁할 말이 있으면 내게 하라. 내가 부탁하면 왕이나 장군이 들을 것이니, 내가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가?” 이 여자의 대답이 또 엘리사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나는 백성 중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왕의 통치 밑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 특별히 구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나? 그래도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있는데 종이 말했다. “제가 보니까 이 집에 딱 한 가지가 없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인을 불렀다. “네가 내년 이맘때에는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었는데, 정말로 아이를 낳게 되었다. 위대한 선지자 뒤에는 이런 이름도 없이 수넬 여인이라고만 기록된 이가 했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보필했고, 눅8:1-3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 또 다른 여인들도 자기들의 재물로 섬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위대한 선생, 존경받는 선생들이 입었던 고급 옷이라고 한다.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가 보필했기 때문이다. 그분을 바라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놀랄 정도였다고 한다. 세계복음화의 과정에서 같이 동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배후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전도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도 이런 인물들이 많았다. 중국 한나라를 건설한 고조 황제에게, ‘나라를 세우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공신이 누구인가’ 하고 누가 물었다고 한다. 사실 고조에게는 그를 보필한 굉장히 좋은 동지, 신하, 동역자들이 많았다. 책략을 세웠던 장량이라든지, 전투를 지휘한 한신이라든지, 목숨을 걸고 고조를 보조했던 번쾌 같은 장군이 있었다. 그런데 고조는 그 사람들 중에서 1등 공신을 말하지 않고, 후방에서 이름 없이 물자와 병력을 끊임없이 모아서 지원해 주었던 소하라는 사람이 1등 공신이라고 했다. 전방에서 싸움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후방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이다.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인가? 시대마다 복음이 사라졌을 때, 이 복음을 회복시킨 개혁자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주역들이었다. 서양사를 배울 때 루터가 나타나서 썩어 문드러진 교회를 완전히 개혁하고 역사가 변화되는 광경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나? 특히 전도와 선교가 상실되어서 세계에 재앙이 왔을 때, 성경적으로 전도와 선교를 회복시킨 전도자들은 세계를 살린 주역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을 돕는 또다른 공신들이 있다. 이들 전도자들의 뒤편에 서서, 전도자들을 보호하며,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졌던 사람들이다. 루터를 도왔던 프리드리히 영주, 무디를 도왔던 워너메이커 같은 사람들이다.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장이었지만, 전도자 무디를 완전히 도왔던 사람이었다. 전도자의 항상 기도 속에 들어있었던 그 사

람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1등 공신이었던 것이다. 오늘 빌레몬서 1:4을 보면, 빌레몬은 전도자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중직자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새로 임직받은 분들과 중직자들, 전 성도들이 함께 이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

1.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

먼저 생각할 것은 4, 5절에 있는 대로, 주 예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다.

(1)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한 감사와 행복이 지속되는 영적 상태다. 날마다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복음을 24시 묵상하면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감사하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살전 5:16-18의 말씀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란다.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불신앙 때문에 계속 부정적인 판단과 생각에 빠지고 비판하기에 바쁜 사람은 이 영적 상태를 누릴 수가 없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신 것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 믿음에서 감사의 영적 상태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참사랑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란다. 누리기를 바란다.

(2)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상태라면, 그때부터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 주 예수에 대한 사랑의 중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감격해서 찬양하게 된다. 이번 주간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란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가 질문해 보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질문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가 모두 베드로처럼, 다윗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① 예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매 맞으시고 침 뱉음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으로써,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명해 보이신 것을 정말로 알게 될 때, 이해하고 믿고 체험하게 될 때, 내 생명을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건지시려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해 볼 때 가능하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아야 비로소 그분을 정말 나도 사랑하게 된다.

② 받은 사랑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면, 그 사랑을 갚기 위한 열정도 생기게 되어 있다. 참된 사랑은 말만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사랑하는 연인들은 무엇이든지 더 챙겨주고 싶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서 작은 것이라도 안겨주고 싶고 선물하고 싶은 것이다. 그게 바로 헌신이다. 주님의 참 사랑을 아는 자는 참 사랑을 할 수 있고, 참 사랑을 하는 자는 참 헌신도 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다가,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 사랑의 열정과 헌신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다(고후5:14). 베드로는 그 사랑에 잡힌 바 되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해도 행복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갔다. 이 사랑이 없으면 지칠 수밖에 없다. 열심으로 하면 무너지게 된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평생의 동력이 되기를 축원한다. 찬양대를 할 때도, 교사를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설거지를 하다가 지쳐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모자랍니다, 주님.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란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을 다시 쳐다본다. ‘저게 정말 최선을일까?’ 정연희 씨가 쓴 소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를 읽다가 나는 최선에 대한 답을 얻었다. 맹관희 장로님의 아들 맹의선 군의 인생을 놓고 쓴 책인데, 그의 마지막 삶은 최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이었다. 신학교를 갔는데 전쟁이 일어났다. 이 전쟁통에 붙잡혀 억지로 인민군이 되었다가 포로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거제도까지 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중공군 포로들이 또 막 몰려왔다. 총상을 당하든지, 여러 가지 부상을 당한 사람들인데, 포로수용소에 의료시설은 부족하고, 부상병은 너무 많은데 일손이 없으니, 자원해서 그들을 간호하는 것이다. 소설가가 수려한 필체로 표현했는데, 그 모습을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 봤다. 말도 안 통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게는 통일을 방해한 원수인데, 그들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감아주고 돌봐주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다. 곳곳에서 환자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중에 밤 열두시가 넘었다. 고무대야를 들고 다니면서 씻을 사람을 씻겨주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가서 같이 슬퍼해 주고, 붕대를 감아주었다. 마지막에 일을 마치고 자기도

침실로 가려고 고무대야를 들고 가다가, 그 자리에서 엎어져서 생명이 떠났다. 생명의 마지막 파편을 그렇게 마친다. 그때 내 마음 속에 깨달음이 왔다. ‘아, 이것이 최선이구나.’ 그때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 조금 흉내낼 뿐이지, 무슨 최선을 다해 보았겠는가. 그리스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것을 정말 체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결론부터 내리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자. 요한복음 3:16은 여러분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데 요한일서 3:16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두 구절이 정말 답이다. 멸망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전체의 요절인 요3:16이라면, 그 은혜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방법과 과정이 요일3:16이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장로, 집사,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요한일서이기 때문이다.

2.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

두 번째 과제를 독상해 보자. 첫 번째 응답받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받은 사람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 구체적인 방향이 6절과 7절에 잘 나타나 있다.

(1) 첫 번째 방향이 무엇인가? 믿음의 교제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축원한다.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할 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의 신앙생활이다. 아무리 찾아도 일을 맡길 사람이 없는 것만큼 답답한 일은 없다. 뭔가 일을 시키려고 하면 ‘나 안해, 나 못해’ 하면서 빠지고 틀어지고 못 한다고 나가니까 참 힘들다. 어르고 달래는 목회를 하다 보니 성도들이 다 이런 수준이었다. 둘째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고 있으니까 첫째 아이가 와서 부모님의 얼굴을 자기한테 딱 억지로 고정시키고, ‘나만 봐 줘’ 하는 것이다. 꼭 그런 모습이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랬다. 어느 날 이 복음메시지를 듣고,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제자가 없었다. 전부 ‘자기만 봐 달라, 돌봐 달라, 자기만 위해 달라’ 하는 사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를 절대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나오겠는가 싶었다. 그래서 갈 사람은 가라, 우리는 이제 세계복음화를 해야 한다고 소리를 질렀더니, 정말로 가 버렸다. (웃음) 많이 갔다. 그러나 그렇게 소리를 질렀어도 여러분은 남았지 않나? 그래서 나는 여러분은 다 요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어느 날 초등학교 한 명이 나에게 말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른이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꼬마가 말했다. (웃음) 우리가 자라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힘을 내시기 바란다.

불신앙을 나누고 쫓겨가려면 다 같이 망하게 된다. 하지만 모일 때마다 믿음 안에서 교제하고 내게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포럼하면, 이것이 믿음을 낳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세상에, 현장에 보여줄 수 있게 된다.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날마다 간증하고 나누기를 축원한다. 다른 사람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다 알게 되기를 축원한다. 사실은 한 사람이면 된다. 루터 한 사람이 세계를 바꿨지 않나. 교황이 황제조차도 갈아치우던 그 시대에 세계를 바꿔 버렸다. 한 사람이면 된다. ‘내가 우리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된다. ‘나는 안 할거야’ 하고 내뱉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는다. “내가 그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곳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시간에 내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의 힘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만 요구하신다.

(2) 믿음의 교제를 교회 안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6절 후반절에 나와 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게 된다고 했다. 모든 성도, 교회를 향한 사랑은 전도와 연결되게 된다.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데살로니가교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색갈이 분명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전체에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서로 가려고 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말은, 개척교회 목회가 너무 힘들니까 사랑 많고 생활비 많이 주는 데살로니가 교회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 정도였다. 마가다락방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졌다고 했다. 참 성도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 현장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돕는 사람이다. 그것이 중직자요, 참 제자요, 전도자다.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우리 지역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될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참 제자요 중직자이다. 이 응답을 우리 모

두가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3) 구체화의 세 번째 내용이다. 중직자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서 어떤 사역으로 응답을 받았는가가 7절에 나온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모든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 성도들, 모든 중직자와 제자들은 성도들의 마음이 편안하도록 위로하는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 교회는 정말 못 다니겠네’ 하면서 뒤돌아서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안 된다. 행여 그런 사람이 생기면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힘을 합쳐 주님을 섬기자’고 해야 한다. 평화를 만드는 자로서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한다.

(4) 구체화의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 7절 후반절에 나온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전도자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구체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다. 신자가 많아지고 구체 대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이 사람들을 돌보느라고 너무 바빠서 현장 갈 시간이 없어지게 되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세운 사람이 중직자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나머지 문제를 책임져 주는 사람이 중직자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이 쟁패를 동원해서 쫓박하러 하니, 바울을 피신시키고 대신 보석금을 내어주면서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 아손이다. 이것이 중직자의 모델이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교회와 후대에 두고두고 기억되는 기쁨비적인 응답을 다 받게 되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말씀을 마무리한다. 일제시대 때 일이다. 유명한 양반 가문에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 있었다. 김용환이라는 사람이다. (학봉 김성일의) 증손인데, 지금 돈으로 280억 원 정도 되는 집안의 재산을 전부 도박으로 탕진해 버렸다.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했다. ‘가문에 미친 놈이 나와서 저 가문이 다 망하는구나.’ 심지어 시집간 딸의 혼수까지 다 팔아서 노름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나라가 해방되고, 그는 1년 후에 죽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도박을 하는 척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독립운동에 다 쏟아부은 것이다. 독립군에게 보내면서, 도박에서 잃은 것처럼 가장한 것이다. 정당하게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 주면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도박으로 잃은 것처럼 해서 그 재산을 다 독립운동 하는 데에 보냈다. 이분이 죽기 전에 이 사정을 잘 아는 친구가 말했다. “이 사람, 죽기 전에 밝히고 가게. 억울하지 않나.” 이분이 대답했다. “선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결국 나라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1995년에야 이분에게 훈장이 추서되었다. 헌신한 분야는 다르지만, 이분이 중직자의 모델이 아닌가 싶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 노름꾼이라는 오명을 무릅쓰고도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한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처럼 평화롭고 안정된 나라에서 번영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아닌가?

중직자 갈렙은 이름없이 헌신하다가 이스라엘에 위기가 왔을 때 나가서, 85세의 나이로 가장 어려운 아난 산지의 문제를 해결했다. 정말 멋있는 생은 이런 생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참사랑 가족 여러분, 특히 램넳트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성도와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레처럼 태어났다가 별레처럼 죽어야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배신자인 인생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 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총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번 망했으면 죽하오니, 이제는 개과전선하여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할 사람으로 저희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이웃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세계복음화의 비밀결사대가 되게 하신 주님, 선교사가 되게 하신 주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며, 천명을 깨닫게 하시고 소명을 들을 수 있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성령의 충만함을, 은혜를, 지혜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참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커버하고, 수도권을 커버하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되며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모자란 것을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